

4. 남·북성(南·北城)을 되살리자³⁰⁾

제주성(濟州城)은 탐라국(耽羅國)시대부터 이미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30여 년 전에 김태능(金泰能) 선생은 ‘탐라(耽羅)’의 호칭이 ‘담 무라’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여 제주성(濟州城)이 고대부터 존재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주성(濟州城)은 적어도 천년을 넘기는 역사를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제주성(濟州城)의 잔영(殘影)

그때의 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확실하지가 않다. 다만 기록 등

30) 『한라일보』(삼각봉), 1995. 02. 24 (금), 본사 주필.

에 “고주성(古州城)인 진성유지(陳城遺址)가 주성(州城) 서북에 있다.”는 점 등으로 보아 근세의 주성(州城) 서쪽으로 형성되었음을 추정해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까지 남아 있었던 제주성은 그 위치를 거의 정확하게 가늠해 볼 수 있다.

동문(東門)과출소를 기점으로 한다면 신산머루 → 일도교(一徒校) 북쪽 → 구(舊) 영락(永樂)교회 남쪽 → 남수각(南水閣) → 오현단(五賢壇) 남쪽 → 남문(南門)로터리 북쪽 → 제주(濟州)의료원 남쪽 경계 → 구(舊) 현대극장 앞 → 서부(西部)교회 앞 → 서문로(西門路) 네거리 → 무근성 네거리 → 진성동(陳城洞) → 북초등학교 북쪽 경계 → 노동부 관리사무소 앞 → 코리아극장 → 해깃골 → 구(舊) 산지교(山地橋) 자리 → 기상대 북쪽과 동쪽 경계 → 동문과출소로 이어지는 타원형의 성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에 따르면 “주성(州城)은 석축으로 둘레가 5천4백89척이며 높이가 11척으로 격대(擊臺) 27, 타첩(塔堞) 4백4개가 있었으며 동·남·서(東·南·西) 삼문(三門)과 남·북(南·北) 2개의 수문(水門)이 있었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

제주성(濟州城)은 192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제주항(濟州港) 축항공사로 헐리기 시작하였으며 8·15 해방이 되고 나서도 그대로 헐려 나갔다. 8·15 이후만이라도 중단되었다면 동문(東門)과출소에서 남수각(南水閣)에 이르는 성지는 살릴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오현단 남쪽과 기상대 일대에서만 그 잔영(殘影)을 찾아 볼 수 있을 뿐이다.

정원루(定遠樓) 복원(復元) 해야

오현단의 성지는 최근에도 문화인식이 없는 사람들에 의하여 하마터면 아주 없어져 버릴 뻔했다. 그러나 용하게도 당시 장일훈(張日勳) 지사와 강경주(姜京州) 시장의 현명한 결단에 의해서 이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제 이 성을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복원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 남아 있는 부분만이라도 이 시점에서 재정비하여 문화자원화 하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남성(南城, 오현단 남쪽)인 경우 남문로(南門路)까지 연장해서 남문루(南門樓)인 ‘정원루(定遠樓)’를 복원해 놓았으면 하는 것이다. 남문(南門)이 원래 길 하나 건너 서쪽에 위치 했었으므로 고작 20~30m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성지 서단과 남문로 사이는 거리나 공간이 대단한 것도 아니다. 다소 보상비가 들더라도 문화개발의 전략적 차원에서 마땅히 이를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원루(定遠樓)는 1920년대까지 남아 있던 건물로 사진이 보존돼 있는 터이므로 거의 정확한 복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오현단 경내에 있는 시설들을 정비하고 굴림서원(橘林書院)과 장수당(藏修堂), 향현사(鄉賢祠), 영혜사(永惠祠) 등 건물 가운데 몇 채는 복원시켜 놓았으면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정비가 이뤄진다면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몰랐던 사람들도 남문로터리를 지나며 성과 성문을 보게 될 것이며 제주(濟州)의 역사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랜 제주인(濟州人)의 정신교육의 본산이었던 옛터를 누구나 잠깐 둘러볼 수가 있고 제주인(濟州人)의 정신문화를 되새기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본다.

다음 북성(北城, 기상대 주변)인 경우 지금 현존하고 있는 성지 주변과 공신정(拱辰亭)이 있던 일대의 시설들을 매수 정비할 계획부터 세워야 할 것이다. 물론 보상비 마련 등 난제가 있다고 하지만 제주시(濟州市)의 내일을 생각하고 면모쇄신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당연히 공신정은 복원되어야 한다고 믿으며 그 밖에도 좀 더 토지매수가 가능하다면 삼천서당(三泉書堂)을 비롯한 몇몇 문화유적들을 살릴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곳은 비단 문화유적지로서만 아니라 절묘한 기암들이 솟구쳐 있었고 수백 년 묵은 곱술 팽나무 그 밖의 제주(濟州) 풍토수들이 우거져 있었던 곳이다. 제주(濟州)시 일원에서는 그 어디 보다도 아름다운 경승지였다. 지금 와서 그날의 경승을 그대로 재현할 수는 없겠지만 공간이 허용하는 한 옛 경관을 살려나가는 노력이 기울여져야 하리라고 본다.

뜻 깊은 문화재생(文化再生)

만약 제주성(濟州城)의 남성(南城)과 북성(北城) 일대를 정비하여 재생시킬 수 있다면 역사문화가 실종되었던 제주(濟州)시에 무엇보다도 값진 문화자원을 탄생시키는 뜻 깊은 사업이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제주(濟州)시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만 본다면 한 마디로 역사와 문화의 부재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지방 못지않게 오랜 전통과 강인한 문화를 지녔던 제주(濟州)시가 이처럼 문화의 전멸지역이 돼 버린 데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제주인(濟州人)들의 시련과 인고 속에 생산해 온 열과 슬기의 문화를 짓밟고 소멸시키는 원흉으로 살아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힘이 허용하는 한 하나라도 되살리는 슬기를 발휘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제주도지사(濟州道知事), 제주시장(濟州市長)의 재검토와 결단을 호소하고 싶다.